

졸업생 소개)

안녕하세요. 25년도에 졸업해서 현재 중앙보훈병원 25사번으로 재직중인 졸업생 입니다.

Q.어떤일을 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정형외과 병동에서 근무중입니다.

Q. 병원에 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취준시절에 보훈병원 공고를 보니까 자소서는 블라인드 위배만 안되면 통과라고 해서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공고났을때부터 필기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험볼때는 한국사가 안들어가고 90문제 만점으로 했어서 간호만 중점으로 봤던거 같아요. 국가고시 범위랑 비슷해서 저는 시중에 파는 문제집은 과목별로 한번씩 다 봤고 빨노초같은 국시 기출문제집도 풀었고 보훈필기 기출 문제도 구매해서 3개년은 풀었던거 같아요. 병리학은 T세포? 호중구 이쪽이 잘나온다해서 그쪽만 책 읽어보고 갔는데 진짜 그쪽에서 나왔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면접은 인성면접이랑 케이스면접 나뉘서 보는데 케이스는 면접 당일 10분동안 읽어보고 어떤 중재를 해야되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한명씩 들어가서 꼬리 질문식으로 이루어졌던거 같아요! 인성면접 2인이 들어가고 분위기가 좋아서 정말 편하게 봤어요! 저는 따로 면접스터디는 안하고 기출만 보고 준비했는데 확실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면접도 한번 모아서 준비하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Q. 병원소개

취준할때 사실 정보가 많이 없었어서 다들 궁금한게 많을거 같아요. 연봉이나 복지같은거 얘기를 해보면

입사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인데 첫달은 70%, 두번째달은 90%, 마지막달은 100% 다 나왔어요. 연봉이 연차쌓이면서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진않고 초봉부터 좀 쎈편?인거 같아요. 세후로 300후반대로 찍히고 나이트 많이 하는 달에는 400이상 찍히는 동기도 봤어요. 오픈는 공휴일 개수 비례해서 나오는 편이도 병동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나이트도 최대 6개정도 해요! 슬리핑오프, 여성보건휴가, 감정노동휴가 등 나름 잘되어있어요! 그리고 중앙보훈병원에 요양병원도 같이 운영되는데 아쉽게도 요양으로 발령받을 수 있어요 신규도! 그리고 로테이션을 해도 요양에서 오거나 요양으로 가지는 않는 거 같아요.. 한번 가면 고정인거 같습니다.

기숙사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빌라 중에서 살게 되고 보통 신규가 들어가는데 입사하고나서도 중간에 신청할 수 있는거로 알아요! 최대 2년까지 살수있고 입사하자마자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동기들은 입사하고 한달뒤부터 불려서 그때부터 살았어요!

복지는 입사 만1년 지나면 복지물에서 60만원정도 포인트 사용할 수 있고 명절이랑 가정의 달에 복지물에서 선물 고를 수 있어요. 보훈의 달에 성과금 받는데 작년에 근무한거 기준으로 해서 받고 그달은 세후로 700넘는 선생님들도 봤어요. 육아휴직도 잘 받아주는거 같아요

교육도 잘되어있어요! 교육전담선생님들이 계셔서 입사하고 2주동안 시뮬레이션 실습하고 병동으로 배치되게 되고 이후에도 3개월, 6개월차에 현장교육으로 교육해주시고 1년 될 때까지 병동으로 선생님들이 찾아오셔서 일하는거 같이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세요!

Q. 보훈병원을 준비하려는 후배들에게 하고싶은 말

취업준비하는게 많이 힘들고 막막할텐데 그래도 차근차근 하다보면 결과가 찾아올테니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해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ㅎㅎ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